

걸릴 자격 없어...“바닥에 널린 작품 밟아주세요”

갤러리생각상자, 12·3 내란 ‘시사캐리커처’ 50점 선배 아트만두 작가 초대 벽 대신 전시장 바닥에 작품 세팅 31일까지 관람객들 캐리커처 밟도록 유도 완성 ‘눈길’

“바닥에 널린 작품을 밟아주세요.” 이런 유형의 전시가 또 있을까. 전시장 하면 보통 벽에 작품이 걸리는 것이 상식이다. 무슨 퍼포먼스라고 하면 납득이 되겠지만 평면 회화로 표현되는 작품이라면 조금 납득이 어려울 수 있다. 광주에서 그런 전시가 열린다. 전시장 바닥에 온통 작품이 나뉠군다.

“귀중한 작품인데 파손되면 어쩌려”라는 걱정이 앞선다. 작품을 건다 할때 가는 행위는 추악하는 행위. 눈높이에 맞는 세계, 적어도 눈 아래로 내려다보는 상태가 아닌 수평으로 인정하는 상황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설정돼 있다.

작품을 벽에 부착한다는 의미는 이처럼 매우 다채롭다. 하지만 벽에 걸려야 하는 작품들이 바닥에 내던져진 채 관람객들이 밟고 밟아가면서 완성되어 가는 작품이 독특한 콘셉트로 구현된다.

갤러리 생각상자(대표 주홍)가 주최회 북 프로젝트 기획 아래 마련한 아트만두 작가의 ‘시사캐리커처’전이 그것으로, 지난 1일 개막 오는 31일까지 한달동안 이뤄진다. ‘밟’이라는 명칭으로 이뤄지는 이번 전시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시사만화가이자 시사캐리커처 작가 및 저격수로 불리는 아트만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출품작은 ‘반국가세력 척결의 밤이 밝았다’와 ‘어디까지 게임’, ‘나왔코’, ‘내마음 운동’ 등 50여점.

그는 실명을 밝히기를 꺼려했다. 그래서 아트만두 작가로 활동한다. 일전에 뉴욕 전시를 다녀온 작품들을 광주에서 선보이는 자리로 주홍 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아트만두’는 홍익대 미대와 대학원에서 관화를 전공한 뒤 1996년 YTN 디자인실, 홍보팀, 보도제작국을 거쳐 디자인센터 브랜드 팀장을 역임하는 등 다소 독특한 이력의 예술가로 통한다. 펀딩을 통해 이런 캐리커처를 모아 ‘아트만두의 비틀뉴스’ (북과펜)라는 단행본을 발간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국내 최초의 시사 캐리커처 모음집으로 알려진 ‘아트만두의 목표는 방구다’ (한길사)를 펴낸 바 있다. 그는 독립운동가 집안의 후손(손자)이자 이런 활동들로 인해 방송국 직원에서 작가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주제인 ‘밟’은 ‘밟다’ 혹은 ‘밟히다’의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가운데 전시 제목처럼 벽에 걸어서 보는 전시가 아니고 바닥에 있는 그림들을 밟는 전시로 이해하면 된다. 그 뒤편한 면상들, 그들이 저지른 만행을 통째로 광주시민들이 밟아버리는 행위 예술로 12·3내란을 응징한다는 스토리다.



‘반국가세력 척결의 밤이 밝았다’

아트만두의 작품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고 비상계엄으로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에 군인들을 보내 무력으로 장악하려 한 내란 관련자들이 그려진 그림을 밟는 행위예술로 이해하면 된다.

아트만두 작가는 시대의 뉴스를 만들고 있는 캐리커처들의 욕망을 통찰하고 한 컷 이미지로 비판한다. 그는 업계 안팎에서 시사캐리커처라는 총알을 장작한 저격수이자, 한 방에 적의 심장을 관통하는 최고의 스나이퍼로 평가를 받는다. 그의 시사



‘건희대제 즉위식’

캐리커처 한 컷에 주인공의 ‘과거·현재·미래’가 통째로 담겨있다. 모두 다 표현되지 않은 욕망까지 디테일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그 섬세함이야말로 명품의 바느질 같고, 마치 동판화를 보는 것과 같다는 반응이다.

비판과 풍자, 애정, 익살이 담긴 그의 시사캐리커처는 권력과 권위를 비틀어 심각한 뉴스조차도 웃게 만들며, 앞서 언급했듯 스나이퍼의 총알을 통해 대중들에 역설적으로 웃음을 안긴다.



‘대통령이 누구?’

주홍 대표는 “5·18국립민주묘지(광월묘역) 구묘역에 있는 광주학살 원혼 전두환 비석을 추모객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하고 있듯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출품작들이 내란범 캐리커처들이다. 그들은 벽에 부착될 자격마저 없어 바닥에 흩뿌리듯 널브러져 있는 것으로 안다. 뉴욕에서 선보인 작품들인데 실내에서 선보여서 그런지 아주 저자분하게 발자국이 남지는 않은 듯 하다. 관람객들이 와서 내란범들을 밟을수록 완성되는, 독특한 작품 콘셉트다”라면서

“공통체의 단단한 미래를 위해 ‘지신밟기’ 하듯 행위예술에 동참하고 발린들의 얼굴에 광주시민의 발자국을 남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작가와의 만남 행사도 마련된다. 작가와의 만남 행사는 지난 1일과 2일에 이어 오는 16일과 17일 등 네 차례 이뤄지며, 북크는 16일 오후 4시 협동조합 시민의 꿈 씨앗씨앗에서 진행된다. 휴관일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담양 지실마을에 예술놀이터 ‘지곡당’ 개관



지실문화예술아카데미는 지난 2일 오후 3시 전남 담양군 기사문화면 지곡리에 위치한 새로운 문화공간 ‘지곡당(芝谷堂)’의 개관식을 열었다.

지실문화예술아카데미...송강의 숨결 60평 예술 공간 무용가 흥신자·요들 김홍철 등 예술계 거장 축하공연 박순애 대표 “지친 영혼들 숨 고르는 넉넉한 품 되길”

기사문학의 향기가 살아 숨 쉬는 담양 지실마을에 예술 숨터가 문을 열었다. 지실문화예술아카데미(대표 박순애)는 지난 2일 오후 3시 전남 담양군 기사문화면 지곡리에 위치한 새로운 문화공간 ‘지곡당(芝谷堂)’의 개관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지곡당이 자리한 지실마을은 송강 정철의 ‘성산별곡’ 배경이자, 정철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살아온 유서깊은 전통 마을로 소쇄원과 식영정, 기사문학관이 인접해 있어 호남 기사문학의 정수가 흐르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별피(星山)를 등지고 무등산을 마주하며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지곡당은 2층 규모(총 60평 남짓)의 건축물로, 한국 건축계의 거목 조건영 건축가의 딸인 조경화 건축가가 설계를 맡아 현대적이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미학을 담아냈다는 반응이다.

박순애 대표는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교단에서 음악의 길을 걸어오며 ‘누

군가와 따뜻함을 나누고 싶은 공간’을 꿈꿔왔다.

한때 주변의 만류와 우려도 있었으나, 박 대표는 평생 모은 정성과 영혼을 다해 이 소중한 공간을 일궈냈다.

박 대표는 “지곡당은 거창한 예술의 전당이기보다, 누구나 편하게 만나 웃고 즐길 수 있는 ‘따뜻한 놀이터’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전시와 춤, 음악회, 명상 테라피가 흐르는 마을의 공동체이자,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작은 통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실제로 지곡당은 싱잉볼 명상, 음악·미술 치료 등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테라피 프로그램과 더불어 외국인들에게 한국 전통춤을 가르치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관식에는 흥신자 등 한국 예술계의 거성들이 대거 참여해 품격 있는 무대를 선사했다. 한국 현대무용의 살아 있는 전설이자 명상 무용가가 평생의

흔을 담은 ‘아리랑’ 퍼포먼스를 선보일 흥신자씨를 비롯해 한국에 요들을 최초로 정착시킨 ‘요들의 아버지’가 축하의 노래를 더할 김홍철씨, 회화와 조각, 퍼포먼스를 넘나드는 아티스트로 역동적인 행위예술을 펼칠 임택준씨, 박순애 대표가 작사·작곡한 ‘이젠 집으로 가자’ (광주 남구 평화의 소녀상 헌정곡)를 비롯해 요들의 지평을 넓히는 공연을 펼치려 광주알핀로제오들을 럽, 알프른, 백파프 등 세계 민속악기로 클래식과 현대음악을 넘나드는 이색적인 무대를 꾸며온 PAN 앙상블 등 다채로운 무대가 구현됐다.

또 국가무형유산 제115호 쪽염색 보유자 정관체씨, ‘말괄량이 삐삐의 별장’ 같으며 지곡당을 예찬한 시인 임의진 목사, 양림동의 문화지킴이 한희원 화가, 그리고 송강 정철의 16대 종손으로 마을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정구선씨가 참여한 지곡당의 첫 출발에 힘을 보탤다.

정구선씨는 “지곡당은 단순히 잘 지어진 건물이나, 마을의 전통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려 애쓴 흔적이 담긴 결과물”이라며 이웃으로서 깊은 감동과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중국 인민군 창건 100주년 기념 우표 제작에 참여

전남 담양 출생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씨가 중국 근 현대화 분수령인 ‘건군 100주년’ 기념 우표 제작에 참여한다.

이이남스튜디오는 ‘중국인민해방군(중국군) 창건 100주년’(2027.8.1)을 기념해 진행될 특별한 문화 프로젝트인 우표 제작에 참여. 송·명대 걸작을 디지털로 활성화하는 등 단순한 인쇄물을 넘어 고전 예술과 현대 기술이 응집된 ‘손안의 미디어 아트’로 탄생하게 된다고 3일 밝혔다.



이이남 작 ‘왕세창 산수도’ 이이남 작 ‘곽희 조춘도’ 이이남 작 ‘김홍도 목죽도’

이번 프로젝트는 이 작가가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통해 송·명 시대의 고전 회화를 ‘살아 움직이게’ 재탄생시킨다는 점이다. 작가는 정적인 고화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 수천 년을 뛰어넘는 예술적 대화를 구축했다. 우표에 수록된 작품으로는 곽희의 ‘조춘도’, 왕세창의 ‘산수도’, 김홍도의 ‘목죽도’, 신 팔대산인의 ‘새’ 등이다.

곽희의 ‘조춘도’는 정치적 질서의 은유를 담은 복숭의 걸작으로, 이 작가의 손길을 통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자연의 생동감이 디지털로 재현됐으며, 왕세창의 ‘산수도’는 명대 원제 절파 화풍의 정수로, 문인이 버드나무 사이를 거니는 산중

이이남 작가, 2027년 앞서 특별 문화 프로젝트 진행 곽희 ‘조춘도’·왕세창 ‘산수도’·김홍도 ‘목죽도’ 등

은거의 풍경이 화면 위에 펼쳐진다. 또 김홍도의 ‘목죽도’는 선비의 지조를 상징하는 대나무가 디지털 바람에 흔들리며 문인의 흥증을 토로하고 있고, 팔대산인의 ‘새’는 명말청초의 화가 주담의 과정을 통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자연의 생동감이 디지털로 재현됐으며, 왕세창의 ‘산수도’는 명대 원제 절파 화풍의 정수로, 문인이 버드나무 사이를 거니는 산중

(Card Holder)에 NFC(근거리 무선 통신) 칩이 내장돼 있어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가까이 대는 것만으로도 이 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이 화면 위에서 즉각 재생된다. 정지된 화면 속의 산수와 대나무는 사용자의 터치에 반응해 비바람, 번개, 눈꽃 등 사계절의 변화를 역동적으로 보여주며 관객에게 몰입감 넘치는 감동을 선사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현대 한국화의 확장된 가능성 엿보다

수하갤러리, ‘한국화 4인 4색...’전 10일까지



이태희 작 ‘외유·몽’

광주 동명동에 위치한 수하갤러리는 한국화의 현대적 변용과 정신성을 조명하는 기획전 ‘한국화 4인 4색-파로 또 같이’를 지난 4월 15일 개막, 오는 1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화라는 개념이 확장되는 현대적 흐름 속에서,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 온 작가들이 개성을 드러내며 이루는 하모니를 선사한다.

이번 전시는 김대원 양홍길 이태희 고미아씨 등 네 작가가 참여해 세대의 양식을 넘나드는 한국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들은 서로 다른 색채와 기법을 통해 ‘한국화’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조우하며, 현대 한국화의 변용과 그 속에 담

긴 깊은 정서를 관람객과 나누고자 한다. 먼저 김대원 작가는 전통적인 호남 산수화에서 탈피해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수묵담채 실경 산수를 선보인다. ‘울릉도 포구’(1991년 작)와 ‘희월정의 솔바람’(2002년 작) 등은 그의 대담한 운필과 예술적 탐구를 잘 보여주는 대표작이다. 또 양홍길 작가는 ‘한국화는 우리 정서를 담아 내는 매개체’라는 철학 아래, 전통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독특한 색채와 형태를 구축했다. 이어 이태희 작가는 한국화의 전통적 요소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이하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예술적 사고 역할을 지체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